2001년 전자산업 통상환경 전망(Ⅰ)

- 본회 국제통상팀 -

1. 세계경제전망

1) 2001년 세계경제는 4%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나 추가적인 경제둔화 가능성도 상존

2001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연착륙, 유럽의 안정적 성장지속, 일본의 성장 회복세와 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2000년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4%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경착륙, 고유가지속, 개도국(동남아,중남미)의 금융불안, 유로화 약세 등 위험요인이 현재화하는 경우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전년대비 성장률, %)

	1998	1999	2000			2001		
			OECD	WEFA	IMF	OECD	WEFA	IMF
세 계	2.2	3.0	4.7	4.4	4.7	4.1	3.8	4.2
선진권	2.4	2.7	4.3	4.0	4.2	3.3	3.3	3.2
미국	4.4	4.2	5.2	5.3	5.2	3.5	3.6	3.2
일본	-2.5	0.3	1.9	2.1	1.4	2.3	3.1	1.8
EU	2.7	2.4	3.4	3.4	3.4	3.0	3.2	3.3
독일	2.1	1.6	3.0	3.0	2.9	2.7	3.3	3.3
개도권[1]	1.5	4.0	5.4	6.0	5.6	5.4	5.6	5.7
태평양연안국	-5.0	5.9	-	6.9		-	5.7	
중국	7.8	7.1	-	7.7	6.7	-	7.5	6.6
기타아시아	6.5	5.7	-	6.0		-	5.9	
중동	-0.2	2.6	-	6.4	-	-	4.3	-
중남미	1.0	-0.8	-	3.7	4.3	-	4.5	4.5
아프리카	4.1	3.2	-	4.4	3.4	-	4.9	4.4
체제전환권	-1.1	2.7	-	4.6	4.9	-	4.4	4.1
구소연방	-3.2	2.9	-	5.1	7.0	-	4.3	4.0
동구	2.3	2.5	-	3.9	3.1	-	4.5	4.2

주: 1) OECD 개도권은 체제전환국 포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2000.
OECD. Worl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0.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0.

린린치와 모건스탠리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8%, 2.5%로 수정 발표하였다.

미국경제는 생산성 향상추세와 건전한 거시경제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물가 및 임금인상 등 인플레 압력과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년 4~5% 경제성장의 주요원인이 주가상승에 따른 소 비심리 부양의 결과였다는 점과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현 추세하에서 경상적 자의 금융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향후 미국경제의 경착 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지역은 역내교역량 증가와 유로화 절하효과에 따른 수출 신장, 경제주체들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 힘입은 내수 회복 등으로 경기 호조세가 지속 될 전망이나 유가 인상의 여파로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는 지난해 2분기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하면서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며 2001년에는 소비심리회복, 신용경색완화, 설비투자확대 등으로 인한 내 수증대와 해외수요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시현 전망이다.

최근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가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정부 재정지출 확대의 한계와 세계경기 성장둔화에 따라 수출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본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기에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경제는 한국, 아세안, 중남미 일부국가의 경기둔화가 예상되지만 중국, 중남미, 러시아 및 동구 등의 견실한 성장으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동남아경제는 작년에 수출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더불어 정치불안 양상이 가중되고 환율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상태이다.

2) 세계교역량은 8%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미국경제의 경기둔화로 증가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일본과 유럽의 경기회복, 세계각국의 무역의존도 증가, 국제자본시장 안정, 정보통신관련 제품 교역확대 등에 따라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 환율전망

1) 엔화

한국의 수출가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엔/달러 환율은 일본경제의 회복 세로 작년보다 강세인 달러당 100-110엔 사이에

<세계교역 신장률 전망>

(단위 : %)

	1999	2000			2001		
		IMF	OECD	WEFA	IMF	OECD	WEFA
교역량	5.1	10.0	13.3	11.4	7.8	9.7	8.2
(단가)	-1.2	-0.5	-	-4.0	0.5	-	0.3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2000.
OECD. Worl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0.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0.

<주요기관들의 엔/달러 환율 전망>

	2000	2001
Reuters Forex Polls	107.3(12월말)	105(3월말), 102(6월말)
JP Morgan	102(12월말)	95(1월)
Merill Lynch	112(평균)	117(상반기평균)
KIET	-	106(상), 103(하)
산업은행	-	106~107(년평균)

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 엔화 강세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재무성이 작년말 이래 엔화 하락을 묵인해 일본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인식 상존하고 있어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화

국내 전망기관들은 올해 원/달러환율이 1,115~1,200원선으로 비교적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최근 모건스탠리 등 외국금융기관들은 빠르면 1/4분기내에 1,300원이 넘을 것으로 지난해말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였다.

연초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일정기간 무역적자 시현, 동남 아통화불안 지속 등으로 원화환율은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전체적 으로 상승세의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들어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면 환율 급등락의 주요인이었던 금융불안 해소와 국제유가 안정,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도 상반기보다 확대되어 소폭 하락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요기관들의 원/달러 환율전망>

전 망 기 관	전 망 내 용
크레디리요네증권	- 1년내 1,280원까지 상승
그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톤(CSFB)	- 3개월내 1,220원까지 상승, 12개월내 1,180원 수준
시티살로먼스미니바니	- 2001년 1/4분기까지 1,180원대
국내연구기관(종합)	- 2000년말까지 1,150~1,200원 - 2001년 1/4분기까지 1,200원대 유지

* 전망시점 : 11월 중순

3. 국내외 전자산업 전망

1) 세계전자시장 전망

2000년 12.0%성장으로 1조1천억불 → 2001년 8.9%성장으로 약 1조 2천 5백 억불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자동화 부문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산업, 가전, 방산부문 등 대부분 성장률 감소할 것이다.

<2001년 세계시장 규모>

(단위 : 억불, %)

구 분		2000		2001	
		시장규모	증감율	시장규모	증감율
부문별	Data Processing	3,616	11.7	3,958	9.5
	Communications	3,027	17.3	3,376	11.5
	Industrial	1,574	11.2	1,677	6.5
	Consumer	2,030	9.6	2,172	7.0
	Military/Civil Aerospace	614	4.1	637	3.7
	Automotive	630	8.4	688	9.2
합 계		11,490	12.0	12,508	8.9

자료 : Dataquest(2000.10)

2) 한국 전자산업 전망

국내경기의 본격회복과 아시아지역의 경기회복, 엔화강세, 구조조정완료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 전반적인 경기여건이 호전되고 있는데다 인도네시아, 호주, 중남미 등의 CDMA 상용서비스 확대, 디지털화에 따른 수요증가, 인터넷 확산에 따른 초고속 인터넷 장비 수요확대 등으로 LCD, 이동전화기, 컴퓨터, PCB,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 31.0% → 20.6% 82,000(백만불)
생산 : 17.7% → 11.8% 108,548(십억원)
내수 : 21.6% → 16.4% 75,856(십억원)
수입 : 41.4% → 30.2% 59,780(백만불)

구 분	2000년(추정)		2001년(전망)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출(백만불)	68,000	31.0	82,000	20.6
내수(십억원)	65,188	21.6	75,856	16.4
생산(십억원)	97,056	17.7	108,548	11.8
수입(백만불)	45,914	41.4	59,780	30.2

자료 : EIAK

【 전자진흥회 설문조사결과 】

- 수 출

전체적으로 호조로 보는 업체가 73%(110업체중 80개사)

변화가 없거나 악화로 보는 업체도 27%(110업체중 30개사)

구 분	전 체		가정용		산업용		전자부품		반도체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크게호전(15%이상)	24	22	2	18	10	24	8	16	4	66
대체로 호전(6%~15%)	56	51	7	64	23	55	25	49	1	17
별 변화없음(-5~5%)	24	22	2	18	8	19	13	25	1	17
악화(-6%이하)	6	5	-	-	1	2	5	10	-	-
계	110	100	11	100	42	100	51	100	6	100

○ 부문별 전망

- 가정용기기

구 분	수출(백만불)				내수(십억원)			
	2000추정	증감율	2001전망	증감율	2000추정	증감율	2001전망	증감율
계	8,050	23.1	9,160	13.8	5,611	27.2	6,177	10.1
영상기기	2,030	15.0	2,455	20.9	1,249	45.2	1,527	22.3
C-TV	1,050	3.6	1,178	12.2	924	46.6	1,140	23.4
V C R	980	30.7	1,277	30.3	325	41.9	387	19.2
음향기기	2,100	46.4	2,459	17.1	1,354	10.5	1,397	3.2
컴포넌트	342	20.8	370	8.2	312	-3.7	318	2.0
녹 음 기	260	-21.2	290	11.5	189	28.6	195	3.2
라디오카세트	582	132.8	762	30.9	338	12.7	420	24.2
전자기기	3,319	16.3	3,530	6.4	2,439	29.4	2,624	11.7
냉장고	746	11.0	790	5.9	931	27.4	1,072	15.2
세탁기	354	23.8	425	20.1	484	8.5	514	6.3
전자레인지	819	8.6	880	7.4	84	7.7	89	5.7
에어컨	704	6.5	797	13.2	443	43.8	525	18.5
기 타	601	23.2	716	19.1	569	29.0	629	10.5

자료 : EIAK, 관세청

- 부 품

구 분	수출(백만불)				내수(십억원)			
	2000추정	증감율	2001전망	증감율	2000추정	증감율	2001전망	증감율
계	36,197	29.1	41,650	15.1	15.1	24.2	42,790	18.1
일반부품	10,697	19.1	12,750	19.2	19.2	13.5	13,620	31.0
음극선관	898	0.5	967	7.7	7.7	5.8	620	21.3
자기테이프	665	17.9	672	1.1	1.1	0.5	405	8.3
PCB	947	39.5	1,023	8.0	8.0	0.2	1,580	56.7
콘덴서	611	89.2	820	34.2	34.2	35.6	1,670	37.4
소형모터	338	27.1	382	13.0	13.0	8.7	652	11.3
LCD	3,987	67.5	5,200	30.4	30.4	48.2	1,560	61.5
반도체	25,500	35.3	28,900	13.3	13.3	29.4	29,170	13.0

자료 : EIAK, 관세청

- 산업용기기

구 분	수출(백만불)				내수(십억원)			
	2000추정	증감율	2001전망	증감율	2000추정	증감율	2001전망	증감율
계	23,753	37.2	31,190	31.3	23,357	16.4	26,889	15.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970	37.0	18,559	32.8	8,794	37.3	11,780	33.9
P C	2,800	50.5	3,889	38.9	2,110	35.1	2,426	15.0
모니터	3,700	9.3	4,500	21.6	1,057	68.0	1,162	9.9
HDD	440	-11.8	400	-9.1	1,365	38.6	1,185	-13.2
프린터	357	70.8	500	40.1	535	8.1	709	32.5
DVD	535	345.8	786	46.9	190	68.0	340	78.9
통신기기	8,757	41.8	11,505	31.4	10,264	5.9	10,570	3.0
이동전화	5,331	44.9	6,460	21.2	4,349	9.0	3,850	-11.5
팩시밀리	50	-68.6	60	20.0	98	-7.5	102	4.1
교 환 기	10	-80.4	13	30.0	1,410	49.8	1,320	-6.4
유선전화	175	38.9	185	5.7	202	-7.3	222	9.9
SVR	439	133.5	610	38.9	3	50.0	5	66.7
계측기기	354	25.5	420	18.6	2,633	2.6	2,750	4.4
기 타	672	2.3	706	5.1	1,666	18.7	1,789	7.3

자료 : EIAK, 관세청

4. 주요 통상환경 변화

1) New Round 동향

지난해말 시애틀 회의의 실패로 각국은 의제와 일정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개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뉴라운드 협상 타결까지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등 수입국으로부터 철강제품 등 주종 수출품에 대한 덤핑 또는 상계조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이 주장해온 포괄적 협상의제가 채택되지 않고 미국 등이 주장하는 점진적 접근 방식에 따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뉴라운드협상 주요논의 내용 】

뉴라운드 협상은 크게 두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돼 오고 있는데 하나는 농산물, 서비스, 반덤핑 협정과 같은 이미 설정된 의제(BIA:built-in agenda)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전자상거래와 같은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뉴통상이슈들이다.

기설정 의제(BIA)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수출보조금 폐지와 시장접근과 관련, 사전적인 예외조항의 인정 여부를 놓고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Cairns) 그룹은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고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적극적인 자유 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산물 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각국이 처한 여건과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감안해 신축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마지막 순간까지 뉴라운드 출범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과 환경

(뉴라운드 이슈중 가장 먼저 검토된 과제)

WTO 산하에 설치된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과 환경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위시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무역과 환경과의 연계방안을 뉴라운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무역과 환경과의 연계방안이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해 수입규제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무역과 노동

현재 미국과 개도국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역과 노동문제를 다룰 작업반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다.

미국은 노동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무역제재를 언급하는 등 노동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문제를 뉴라운드이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 개도국들은 노동기준도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와 같은 저개발도상국들의 반대입장이 워낙 강해 농업분야와 함께 뉴라운드 출범의 최대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과 투자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투자와 무역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포괄적인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제기된 과제이다.

그동안 해외투자비중이 높은

캐나다, 일본, EU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 으나 정작 미국은 별도의 국제투자규범은 투자자유화를 저해한다는 관점에 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최근 들어서 미국이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데다 대다수 개도국 들도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긍적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 의견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무역과 경쟁정책

1990년대 들어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각종 기준과 관행을 통일시키는 경쟁정책과 무역정책과의 부조화 문제가 자유무역을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한 과제이다.

현재 미국은 EU를 중심으로 무역개념을 경쟁개념으로 수용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를 비롯한 홍콩 일본은 미국과 EU의 주장과 달리 민간기업의 반경쟁적 관행보다는 반덤핑조치와 같은 정부의 반경쟁적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각국의 입장을 보면 무관세 대상범위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의 무관세원칙에 대해서는 동조하고 있어 앞으로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부시 행정부는 자유무역 확대를 공언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말해 미국 상품의 대외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인 다른 나라들의 대미 수입장벽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현대전자의 회사채 인수문제와 철강수입 규제문제를 공식 거론하고 나섰으며 향후 미국의 對한 통상공세가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온 노동, 환경 요건을 무역과 연계해 처리하는 문제는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장벽 제거를 위한 통상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주력 상품인 농산물, 항공기, 군수장비 등에 대해 수입장벽이 높은 EU, 일본, 한국 등은 거센 개방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노동 및 환경 조건이 열악한 국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갈수록 확대되는 무역적자문제로 미국 국내산업과 경합관계에 있는 전자, 정보통신, 범용화학, 자동차 등의 주요산업에 대한수입규제와 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3)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신속협상권(fast track) 승인에 대한 의회의 반대로 부결되었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 국가들의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국들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4) 유럽연합(EU) 확대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폐막된 정상회담에서 2004년 EU 가입국 대폭 확대와 그에 따른 기구 개혁안, 투표권 배분 등 제도개편에 전격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로 EU는 50년대 6개 회원국으로 출범할 당시의 제도를 손질, 21세 기형 EU로의 개편과 동유럽국가들을 가입시켜 28개국으로 회원국을 늘린다는 일정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료회의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각

각 29표, 스페인 27표, 네덜란드 13표,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은 각각 12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10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는 각각 7표, 룩셈부르크는 4표를 갖게 되었으며 가입협상중인 폴란드에 28표, 루마니아에 14표, 체코와 헝가리에 각각 11표, 불가리아 9표, 슬로바키아 7표, 리투아니아 6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에 각각 3표가 할당되었다.

【 EU확대 따른 경영환경변화 】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도전기회

EU연합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 후보국들은 시장지향적 개혁(market-oriented reform)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개혁으로 안정된 성장을 도모하고 서구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분위기를 창출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0-1998년 동안, 거의 40십억$에 달하는 서구 자본이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체코 공화국 및 슬로베니아에 유입되었다.

서유럽 자본과의 협력 및 국경지역 M&A 활동이 활발하고 이러한 발전적 상황은 EU 모든 기업 경영인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할 것이다.

많은 다국적 기업 또는 중간규모의 기업들이 이미 중동부유럽(CEECs)에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서유럽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시장과 성장을 향한 기회제공

중동부유럽이 EU에 합류하게 되면 종전의 비용절감과 같은 이익이 없어지게 되지만 이미 이 지역에서 생산, 조달 및 판매를 해온 서유럽의 기업들은 확대된 EU의 시장을 근거로 더욱 활발한 조달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쌍방 지역간의 조화는 생산비용 뿐만 아니라 가격 및 시장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EU 확대로 인해 단일 시장내의 GDP가 전체적으로 향상되게 되며, 동유럽 시장은 EU의 경쟁 파트로 자리 잡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미 동유럽시장에 진출한 경영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반면 동유럽 기업들은 중반기 이후 왕성한 자본력과 축적된 기술로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서유럽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서유럽의 기업 중 이미 동유럽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가중되는 경쟁압력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장운영에 안전을 기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의 감축 및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

EU의 확대와 단일통화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으로 유로의 유입으로 인해 환전매매가 사라지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EU의 동유럽 확대로 유로는 국제적으로 한층 부상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며 모든 협상 및 행정적인 절차에 투명도가 향상되게 될 것이다.

5) 개도국들의 수입규제 강화

작년 10월까지 수입규제 총건수 106건 중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건수가 62건에 달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수입규제 대상국임)

최대 규제국인 미국은 감소한 반면 중남미 국가가 크게 증가하였다.(미국은 DRAM, 황동판, 컬러TV, 와이어로프 규제 종료)

품목별로는 섬유류, 석유화학, 철강이 형태별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가 각각 증가 하였다.

<對韓 국가별 수입규제(2000. 10월말 현재)>

(단위 : 건수)

상 대 국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공동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총 계
북미	미국	13 (3)	5 (-)		2 (-)	20 (3)
	카나다	6 (-)				6 (-)
중남미	멕시코	3 (2)				3 (2)
	아르헨티나	4 (-)			2 (1)	6 (1)
	콜롬비아				1 (1)	1 (1)
	브라질	2 (2)				2 (2)
	칠레	3 (3)			1 (1)	4 (4)
	베네수엘라	1 (1)				1 (1)
구주	EU	14 (5)				14 (5)
	터어키	4 (1)				4 (1)
	러시아				1 (-)	1 (-)
	폴란드				1 (1)	1 (1)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10 (6)				10 (6)
	이집트	1 (-)				1 (-)
아주	태국	1 (-)				1 (-)
	인도네시아	3 (2)				3 (2)
	말레이지아	2 (-)				2 (-)
	인디아	12 (4)			4 (1)	16 (5)
	중국	3 (1)				3 (1)
	대만	2 (-)				2 (-)
	필리핀	1 (1)				1 (1)
대양주	호주	4 (1)				4 (1)
	뉴질랜드	- (-)				- (-)
총 계		89 (32)	5 (-)		12 (5)	106 (37)

*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조사중 37건 포함 총 106건. 자료 : 산업자원부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2000. 10월말 현재)>

(단위 : 건수)

상 대 국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섬유류	기타	총 계
북미	미국	15(2)		3(1)	1	1	20(3)
	카나다	6					6
중남미	멕시코		1(1)		2(1)		3(2)
	아르헨티나		2		3(-)	1(1)	6(1)
	콜롬비아					1(1)	1(1)
	브라질	1(1)			1(1)		2(2)
	칠레		2(2)	1(1)	1(1)		4(4)
	베네수엘라					1(1)	1(1)
구주	EU	2(1)	5(-)	3(2)	1(1)	3(1)	14(5)
	터어키				4(1)		4(1)
	러시아					1	1
	폴란드				1(1)		1(1)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2(1)	1(1)	2(2)	1(1)	4(1)	10(6)
	이집트					1	1
아주	태국	1					1
	인도네시아	2(1)		1(1)			3(2)
	말레이지아			1		1	2
	인디아	1(1)	1	10(3)	4(1)		16(5)
	중국	1(1)		1		1	3(1)
	대만	2					2
	필리핀			1(1)			1(1)
대양주	호주			3(-)		1(1)	4(1)
	뉴질랜드		-				-
총 계		33(8)	12(4)	26(11)	19(8)	16(6)	106(37)

* ( )내는 현재 조사중인 건수